

## [두산아트스쿨: 미술] 컬렉터가 사랑한 세기의 작품들 II (정윤아)

11/17 5강 웨인 티보: 마음을 흠치는 달콤한 그림을 그리다

### 강의 개요

미술사에서 알려진 많은 양식이나 그룹명들 중에는 자신들의 예술 개념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술가들 스스로 직접 명명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양식으로 분류되기를 거부한 예술가들도 많다. 홀로 고독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하다. 오늘 강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넓은 팬층을 거느린 미국의 대표적인 서부지역 출신 화가로서, 팝 아티스트로 분류되기를 사양했던 웨인 티보(Wayne Tiebaud, 1920-2021)의 작품 세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1. 팝아트와의 연관성

티보가 팝 아티스트로 여겨지는 주된 이유는 그가 다룬 주제에서 기인한다. 일례로 <케이크들> (Cakes, 1963)이라는 작품을 보면, 아기자기한 유럽의 케이크들과 달리 장식이 생략된 다소 투박한 모양의 케이크들이 주제다. 누가 봐도 1960년대 미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케이크들이다. 이처럼 워홀(Andy Warhol, 1928-1987)이나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1923-1997)같이 동시대 뉴욕에서 활동한 팝 아티스트들처럼 그 역시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평범하지만 지극히 '미국적인' 사물들을 회화의 주제로 삼았다. 그런데 그는 왜 자신은 팝 아티스트가 아니라고 했을까?

### 2. 팝아트와의 차이점

#### 1) 제과 그림: 추상과 구상의 경계 실험

티보는 카페 진열장에 줄 세워진 케이크, 파이, 도넛, 사탕 등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누리던 시기의 미국의 풍족함을 상징하는 맛있는 제과들을 주제로 많은 정물화를 그렸다. 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 짓게 하는 그의 달콤한 음식 주제 회화는 삶의 소소한 기쁨과 어린 시절의 행복한 추억을 되살리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다. <케이크들>을 자세히 보면, 풍부한 색채와 부드럽고 감미로운 붓질로 표현된 세 종류의 케이크가 단순한 배경 속에 줄지어 있다. 이처럼 케이크라는 일상적 주제 속에 미국의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이 그림은 물감을 다루는 티보의 남다른 기술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그는 물감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도넛 위에 뿌려진 설탕 막에서부터 반짝이는 금속에 이르기까지 묘사하려는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완벽하게 묘사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실제 그의 그림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완숙한 터치로 두껍게 바른 물감으로 인해 마치 추상화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전체 화면을 보면,

맛있는 케이크가 눈에 들어오면서 말할 수 없는 포근한 행복감을 준다. 심각한 붓질의 추상과 가벼운 주제의 구상을 오가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중성의 공존이 단순하고 유치할 수도 있는 주제를 흥미롭게 만들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티보 회화만의 독창적인 매력으로 작용한다.

## 2) 인물화: 일상과 대상에 대한 조용한 사색적 감성

두터운 물감과 단순한 구성, 과장된 듯 풍부한 색채를 통해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의 순간들에 대한 조용한 사색의 감성에 관해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티보는 자신을 늘 “그냥 구식 화가”라고 낮추곤 했다. 1963년경부터 그는 음식 정물화에서 인물에 대한 형식주의적 관심으로 주제를 넓히기 시작했는데 <누드>(Nude, 1963)는 이 시기에 그려진 좋은 예이다. 이전과 주제는 전혀 다르지만 정면을 바라보는 대상, 대칭적 구도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정적이고 조용한 사색적 감성은 일관성이 있다. 또한 부드럽고 두터운 붓질과 형형색색의 알사탕을 연상시키는 형광 색채의 얇은 선은 이전 그림과의 연관성을 찾게 한다.

이 작품에서도 이중적 이질감을 한 화면 속에 녹여내는 그의 솜씨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누드의 명확한 형태는 분명 구상화이지만, 선이나 배경보다는 색채와 빛에 초점을 둬으로써 추상화적 면모를 제시한다. 또한 두터운 물감의 붓질은 회화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녀에게 드리워진 창백한 푸른 회색빛 그림자는 마치 광고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이 누드화는 다수의 이중적 요소들로 작품에 수수께끼를 더하며, 등장 여성의 성적 매력에 치중하던 전통 누드화와는 다른 영역을 개척하고 있으며, 정적인 인물을 통해 사색적 감성을 느낄 수 있다.

## 3) 풍경화: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전망

정물화와 인물화에 그치지 않고, 티보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도시 풍경화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주로 자신이 살던 샌프란시스코의 따뜻한 햇살과 구불구불 급경사 진 언덕으로 이루어진 거리 풍경을 전통 원근법을 해체하여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학을 매력적으로 묘사했다. 여기서도 추상과 재현 사이의 교차점을 형성하면서 능숙한 붓질과 따뜻하고 독특한 색감으로 티보 특유의 조용한 사색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는 시기적으로도 뉴욕 팝아트 예술가들보다 활동 시점이 10여 년 앞서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일상적 소재에 냉소적인 뒤틀림을 입힌 반면, 평소 시를 즐겨 읽던 티보는 삶의 평범한 순간을 스냅 샷 같은 이미지로 포착하고, 남녀노소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감성으로 전달하였다. 비록 그가 전통을 전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긴 하였지만 미국적 회화의 원형을 보여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같은 화가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더불어 누구보다도 회화의 형식과 구성, 색채 자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점에서 왜 그가 “그냥 구식 화가”로 남기를 원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